

“오늘부터였나요?” 병원 본인 확인 강화에 시민 혼란

20일부터 적용... 없으면 보험 안돼
일선 대학 병원에서 시민들 어리둥절
2주 내 본인 확인 거치면 차액 환급
건보 자격 부정 대여 시 형사처벌



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첫날인 20일
조선대학교병원 로비는 본인 확인 절차로
접수 대기 시간이 길어져 대기 중인 환자
로 북적였다.

“원래 2분이면 접수가 됐는데 오늘은
10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가 시작된 20일. 조선대학교
병원을 찾은 정중옥(38)씨는 평소보다
두배 이상 길어진 대기 줄에 불만을 토로
했다.

정씨는 “갑자기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당황했다.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귀찮을
뻔했다”며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대기 시
간이 길어진 점이 가장 불편하다. 과거에
는 무인으로 접수해 2분이면 처리가 됐는
데 오늘은 10분 이상 기다리고 있다”고 말
했다.

허유리(32)·이준혁(41)씨 커플도 마
찬가지다. 허씨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
한 건 좋지만 병원 측에서 확실하게 신분
증 지참 안내를 해줬으면 한다. 여러 병원
에 다니는데 동네 치과 한 곳에서만 안내
문자가 왔다”며 “무인 접수·앱 결제 등이
불가능해 절차도 복잡해지고 대기도 길어
졌다. 평소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신분증 미
지참으로 오전 중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한두 명 정도 있었다”며

“홈페이지 공지, 포스터 부착 등 혼란을
대비해 환자들에게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안내했다. 본인 확인 절차로 평소보다 대
기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
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늘 아침 직원
을 추가 배치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 김
모(44)씨도 진료를 접수하려다 병원 직
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이내 “지
갑을 평소에 안 들고 다녀서 신분증이 없
다. 집에 다녀오겠다”며 급히 자리를 뒀
다.

화정동 한 정형외과에서 만난 홍성록
(58)씨도 “진료 예약을 위해 통화 중 신분
증을 가져오라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오
늘부터 신분증 지참이 필수로 바뀐 줄 몰
랐다”며 “미리 통화하지 않았으면 집에 다



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첫날인 20일 전남대학교 병원 접수처에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시 돌아갈 뻔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1~2명 정도의 환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되돌아갔다.
첫날이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을 대
신할 서류를 지참하신 분은 편의를 봐 주
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분증 없이 병원을 찾은 시민들의 혼란
이 가중됐다.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평소
보다 대기 시간이 두배 이상 길어져 불편
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었다. 이날부터 건
강보험증·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 5. 20.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첫날인 20일 전남대학교 병원 접수처에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다.

대학병원은 예약 진료가 대부분이어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많았다. 병
원 측은 혼란을 우려해 홈페이지 공지·포
스터 부착·신분증 지참 문자 안내 등을 통
해 대비했다.

법안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
다. 서구 농성동 한 정형외과에서 만난 이
모(65)씨는 “주변에서 제삼자도 도움 사
례를 들었다”며 “비슷한 연령대라면 신분
증을 숙이기 쉽기에 이런 법령이 시행되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본

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 여
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
서다.

염상철(45)씨는 “분명 환자 입장에서
더 번거로워졌다. 신분증을 두고 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시골에서는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듯하다”고 우려
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3~4명의 환자가
신분증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접
수할 때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
라면서도 “신분증 제출을 통해 정확한 신
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결국 환자에게
도 편리할 것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주민
등록번호를 잘못 알고 일치하지 않는 번
호를 알려줘 보험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
도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명서 외 모바일 건강보험증, 간편
인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 모바
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
전화에 설치하는 등 일부 부정 사용 가능
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타인의 휴대전
화에 건강보험증이 설치돼 사용되는 사
례를 줄이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만
설치되도록 하겠다”며 “지나치게 잦은 인
증서 발급 등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
심 사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박찬 수습기자

연인 바다에 떠민 60대 국민참여재판

스토킹·감금·살인미수 등 혐의
변호인·검찰, 증거 놓고 맞서

외도 문제로 연인 관계의 여성을 감금
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된 60대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이 열려 귀
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
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 30
분께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
차에 억지로 태워온 지인인 B씨를 바다에
빠뜨린 뒤 수면 위로 못 올라오도록 막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진
도군 한 농장에서 흥기를 든 채 B씨에게
협박한 말로 협박하고 둔기(수들)을 얼굴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7월 사이 B
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의사·추궁하며 14
차례에 걸쳐 전화·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다’는 이유로 격분, 온갖 험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B씨의
어린 딸에게도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
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법률대
리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하
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배심원단 앞에서
“B씨만 바다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다툼
직후 ‘같이 죽자’며 손을 잡고 뛰어내린
것이다.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범행을 멈췄기 때문에 감경 사유에 해당
한다. 서로 다툼 것은 맞지만 흥기를 들었
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성 말을 한 적
이 없다”고 했다. 또 “선착장까지 승용차
로 함께 이동한 것 역시 감금한 것이 아니
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검사는 “그저 농장 일을 도와주는

직원이었을 뿐이다. 연인 관계가 아니었
다”는 취지의 피해 여성 B씨와 주변 참고인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또 “A씨가 던진 둔
기에 맞아 눈을 다친 B씨가 차량에 함께 타
는데 동의하고 ‘같이 죽자’며 향한 선착장
까지 자의로 따라 갔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사는 B씨가 직접 각 현장에서 당시 상황
에 대해 설명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녹
화 영상 등을 들어 유죄 입증에 힘썼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
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다. 광주
지법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여 만
에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 송민섭 기자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적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감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5월 14일 주주총회에 갈
음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
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
이 있는 분은 공고 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
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21일
주식회사 골드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306-37,
106동 1702호
(신창동, 신창유람유폴레스리뷰아파트)
청산인 김미라

상속한정승인공고

망윤현숙(550727-2*****) 2023.11.23. 사망
최후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98, 101동
208호(용암리, 영암삼호빌라트먼트)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 2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
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4년 단 130 상속한정승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4. 5. 14.

◎ 청구인: 이경대

◎ 공고기간: 2024. 5. 21 - 7. 21.

◎ 신고처: 속초시 중앙시장로 19, 2동 503호(중앙동)
2024. 5. 21.